

친애하는 수녀님들,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의 축일을 축하 드립니다. 우리는 세계에 존재하는 새롭고 오래된 빈곤을 9 일기도를 통해서 다시 숙고하면서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창립자께서 지적 했듯이 오늘 우리시대의 인류를 “성소적 정신”으로 섬길 수 있도록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의 중재를 청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천상목자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주 흡사한 성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의 사명과 아주 흡사한 성소와 일치하십시오. 그러면, “ 나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참조. 요한 10,15)는 성소정신이 점점 더 스며들 것입니다. 서원하십시오, 생명은 영혼들을 위한 것입니다. 생명은 영혼들을 위한 것입니다. “(AAP 1963, n 169)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어머니요 자매가 되기 위한 우리의 수도서원의 직무를 신뢰와 기쁨으로 새롭게 합시다.

“구원의 계획을 위해
겸손한 마음의 자세로 스스로를 봉헌하신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범을 따라,
하느님의 백성을 구성하는 모든 이의
어머니요 자매가 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목적 직무에
협력하는 삶을 산다.”
(생활규칙 8)

선한목자의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와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는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보시기에 유익한 모든 은총을 전구하십니다. 축일 축하합니다. 특별히 올해 수도서원 금경축을 맞이하는 수녀님들께 축하드립니다.!

아민타 사르미엔토 뿌엔테스

총원장